

“한사코 마다했는디, 고흥을 알리자 하는 통에...”

고흥군 ‘송수권 시문학상’ 제정 ... 송수권 시인 인터뷰

“해도 나 죽으면 하라고 했는데, 군에서 내세울 만한 게 없다고 하는 통에...” ‘송수권 시문학상’(상금 3000만원)이 제정된다는 소식이 시인은 겸연쩍어 했다. 그는 “처음에는 한사코 반대를 했다”며 “그러나 고흥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거라는 관계자의 말에 이해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송수권 시인. 그는 가장 시골스러운 외모와 남도의 정서를 지닌 문인이다. 그러나 마냥 촌스럽지만은 않다. 시인의 내면에 드러난 전라도적인 정서, 그만의 탄탄한 문리는 여타의 시인과 차별되는 독특한 문체세계를 아우른다. ‘산문에 기대어’ 같은 시는 현대문학사에 빛나는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먼저 축하한다. 시문학상 제정 소식에 대한 소감이 궁금하다.”

▲처음엔 무슨 문학상을 만나 싶었다. 더욱이 내 이름을 딴 거라 조심스러웠다. 군 관계자가 문학상 제정은 지역문화 전통을 계승하고 문학의 고장 고흥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또한 2017년 개관 예정인 윤대리 담방분청사기문화관과 함께 고흥을 대표하는 문화브랜드로 내세운다고 하더라. 나로서는 고마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생전에 하는 일이라)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다.

“작품 활동을 비롯해 근황이 궁금하다.”

▲광주 일곡도서관에서 시장작 강의를 한다. 한 20여 명 있는데 생각 외로 실력들이 탄탄하다. 대학교수도 2명이나 있다. 문학 인구가 없을 것 같은데 의외로 저변에는 많다. 삶이 어려울수록 문학에 대한 열망이 강렬해지는데, 그러한 측면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고흥에는 동요작가 목일신, 시조시인 조충현 등 뛰어난 문인들이 많다. 여기에 판소리 명창 김연수도 남도의 정서

“ 남도의 멋은 소리·가락·춤 요즘 시는 가락을 잃어버렸어 평론가들이 균형을 잡아줘야 ”

를 토대로 소리를 했다. 위의 예술가들과 선생의 문학적 정서가 일정 부분 겹친다.

▲평자들은 내 시의 특징을 남도의 서정과 절진 남성적 가락의 결합으로 본다. 그 같은 평을 부정하고 싶지 않다. 달리 말하면 자기 탐닉에 매몰되는 한을 민족적, 역사적 한으로 승화시켰다고 보는 편이 맞다.

“‘승화’라는 표현이 맞을 법 하다. 그럼에도 선생의 시의 기저에는 ‘아름’의 흔적이 드리워져 있다. 대개 문인들은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기도 한다.”

▲이미 알려진 대로 내 시의 출발은 상처다. 어린 시절 계보 밑에서 자랐다. 설움도 많이 받았고 배도 고프다. 중학교 때까지 새벽밥을 먹고 20리를 걸어 학교에 갔다. 이후 순천으로 나와 사범고등학교에 다녔다. 나의 유년과 청소년 시절은 모성애의 결핍 시기다. 그러다 문학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 스물네 살, 군대를 제대한 직후였다. 애뜻했던 동생이 그만 자살을 하고 만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시 ‘산문(山門)에 기대어’는 그렇게 나왔다. 1975년 ‘문학사상’에 백지에 써서 응모했는데 당선이었다. 시에서 ‘누이’를 애대개 찾고 있지만 사실은 남동생의 죽음을 슬퍼한 비가(悲歌)다.

“서정 시 뿐 아니라 서사시에 대한 관



심도 많은 것 같다. 서정시에서 출발해 서사시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받는다.

▲틀린 말은 아니다. 동학혁명을 소재로 다룬 ‘새야 새야 파랑새야’는 서사시 집이다. 5·18을 다룬 ‘아도(嗚咽)’는 민중수난에 대한 시적 성찰이다. ‘아도’는 병어리 아(啞)에, 짙그릇 도(陶)다. 아도는 조선 건국 시 이태조가 만들었다는 주먹만한 짙그릇이다. 입과 귀의 형상을 기형적으로 비틀어 놓은 것이다. 최근에는 여순사건을 배경으로 한 장편 서사시 ‘달궁아리랑’, 4·3 사건을 다룬 ‘빨치산’을 펴냈다.

“풍물문화연구 관련 일도 하고 있다.”

▲남도의 멋은 소리와 가락, 춤사위를 빼놓고 말할 수 없다. 또한 타 지역과 차별되는 특유의 사투리는 권 있고 구성지다. 그 뿐인가. 남도 음식의 재미는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다. 풍요로운 자연과 인심에서 연유하는 음식은 맛은 남도

인의 정체성을 대변한다. 문학 창작 강의와 함께 음식 강의, 남도 사투리 강의를 하러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간다. 예전 대학에 재직할 때보다 더 바쁘게 산다.

“시가 읽히지 않는 시대라고 한다. 독자들은 요즘 시를 보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런 면이 없지 않다. 요즘 시는 산문이지, 시라고 하기에는 그렇다. 가락도 없고 맛도 없다. 이런 양상이 전 세계적인 추세라 뭐라 말하기도 그렇다. 이전에는 시는 노래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말이다.

“표현 양상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면도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시가 가락을 잃어버린 것은 중남미 대표 시인 옥타비아파스의 시문서 ‘월과 리라’의 영향이 적지 않다고 본다. 이 책은 동서양의 시문학사를 엮어 자료가 풍부하다. 그러나 “월의 사위나 리라의 현저함, 우주는 팽팽한 긴장 상태에 있다”는 헤라클레이토스의 이미지가 이 책의 기본적인 전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문학이, 시가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평론가들이 균형을 잡아줘야 한다.

“향후 창작 계획은 어떤가.”

▲항간에는 문학위기는 말이 있지만 문학인 관점에서 보면 문화 장르 차별에서 비롯된 측면이 없지 않다. 타 장르에 대한 지원은 많지만 문학은 고작 창작집 발간 지원에 그친다. 말로는 문학이 모든 문화의 기본이라고 하면서 그 기본을 애써 외면하고 도외시한다. 그러나 창작면에서 강의를 해보면 문학에 대한 열정을 지닌 이들이 의외로 많고, 수준도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나 또한 건강이 허락하는 한, 시를 쓰고 문학의 확장에 기여할 것이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너나들이 달꽃피다

23일 목요일국악한마당 창작국악 그룹 ‘그루’ 출연

창작국악 그룹 ‘그루’(사진) 광주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이 주최하는 목요일국악한마당 무대에 선다. 23일 오후 7시 전수관 공연장.

“너나들이 달꽃피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그네’(초연), ‘나비야’, ‘아름다운 나라’, ‘봄날’, ‘하얀 꽃잎’, ‘꽃타령’ 등을 선보이며 입체창 ‘사랑가’ 등을 들려준다.

창작국악그룹 ‘그루’는 한국전통음악

이 가진 단아한 선율과 풍부한 음색을 선보이는 그룹으로 많은 관객들과의 공감을 위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도 선보이고 있다.

‘그루티기’에서 따온 양상블 이름 ‘그루’는 잘려간 나무가 썩어가 되듯 대중들에게 편안한 음악을 들려주고 싶은 마음으로 지었다. 무료 관람. 문의 062-350-455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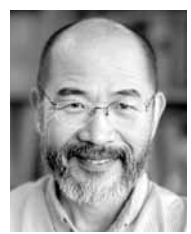
베스트 오퍼

장석원 전북도립미술관장 ‘씨네토크’ 참여

23일 오후 7시 광주극장

장석원(사진) 전북도립미술관장이 23일 오후 7시 광주극장에서 열리는 ‘씨네토크’에 참여한다.

광주극장은 지난 4월부터 매달 전문가를 초청, 함께 영화를 보고 다양한 대화를 나누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장 관장이 선택한 영화는 경매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베스트 오



퍼다. 영화 제목 ‘베스트 오퍼’는 ‘경매에서 최고 제시액’을 뜻한다. ‘시네마 천국’의 주세페 토르나토레와 엔리코 모리코네가 호흡을 맞춘

작품으로 제프리 러쉬 등 연기와 배우들이 출연한다. 티켓 가격 5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빛고을아트스페이스 문화예술동아리에 무상 제공

광주문화재단은 위탁운영 중인 빛고을아트스페이스(옛 전남도체육회관) 건물 일부를 창작공간으로 만들어 광주 지역 문화예술동아리에 무상 제공한다.

창작공간을 지원받게 된 단체는 2015 문화예술동아리활성화지원사업을 통해 선정된 60개 단체 가운데 신청을 받아 지난 2일 6개 단체가 최종 선정됐다.

선정 단체는 ‘해와 달 밴드’ ‘모노 아카펠라’ ‘인아시아밴드’ ‘꽃뜨루 예술단’ (전통무용) ‘다문화M오케스트라’ ‘통기

타동호회 필로스’ 등이다. 이들 단체는 2016년 7월까지 1년 동안 빛고을아트스페이스 4층에 위치한 3개의 창작 공간(43㎡)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한편 지난 2011년 3월부터 광주문화재단이 광주시로부터 위탁 운영 중인 빛고을아트스페이스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현재 1층에 미디어아트레지던스 공간과 식당이 입주해 있다. 문의 062-670-7937.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전남에는 어떤 문학상이 있나

최근 고흥군의 ‘송수권 시문학상’ 제정을 계기로 남도 출신 문인들을 가리는 문학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 문학상은 대부분 문인의 이름을 따서 제정된 데서 보듯 공통적으로 문학정신 계승과 지역 홍보에 초점을 두고 있다.

광주에는 박용철, 김현승, 정소파를 가리는 문학상이 있다. 2013년부터 한국문학발전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김현승 시인과 정소파 시조시인을 추가해, 기존 박용철 문학상에 김현승·정소파 문학상

강진 영광문학상 순천 김승옥문학상 삼곡 등 전국적인 권위

을 제정했다. 062-613-3463.

순천 출신 김승옥 작가의 문학정신을 가리는 ‘김승옥문학상’은 지난 2013년 KBS 순천방송국이 제정했다. 상의 취지는 단편문학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를 개척, 한국문학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 김승옥의 문학적 업적을 가리는 데 있다. 문의 010-5308-2312.

강진은 현대 문학사에 빛나는 ‘오메



단풍 들것네’로 유명한 김명랑 시인의 고향이다. 올해 12회를 맞은 김명랑문학상은, 영광생가 일원과 시문학파기념관에서 개최되는 영광문학제(5월)에서 시상한다. 문의 061-430-3186

담양은 시조와 함께 가사문학이 꽃핀 고장이다. 담양 출신 송순은 가사 문학의 대가로 면앙정가단을 창설한 조선 후기의 대표 문인이다. 군은 지난 2012년 송순문학상을 제정 시, 소설, 동화, 희곡,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작품을 공모한다.

목포시에서 전국 신인 및 기성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목포문학상’은 올해 7회째를 맞는다. 목포문학상은 김우진·박화성·차범석·김현 등 한국 문학 이끌어온 문인들을 기리고 목포의 문학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지난 2009년에 제정되었다. 문의 061-270-8440.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투데이 경매

주월동 아파트단지내 최고상권 편의점, 카페, 학원등 입점추천 지하1층~지상4층
대지 236㎡ 건물 594.8㎡
감정가 4억 5천 3백
최저가 4억 5천 3백

광주 유암동 하남대로변에 위치한 상가건물 공구 및 건축자재업종 입점 용이함
지하1층 ~ 지상5층
대지 220㎡ 건물 641㎡
감정가 7억 2천
최저가 5억 3백

화순읍 한전 맞은편 주유소부지 교차로 근접
2층상가, 자동세차기 포함 상가, 병원부지 및 손세차장 적합 토지 1249㎡ 건물 600㎡
감정가 10억 7천 5백
최저가 7억 5천 3백

KT&G 본건
양산동 로케트전자부지 공장용지 81453㎡ (24682평) 일반공업지역
감정가 271억4천
최저가 152억
고수의 창출 가능!

투데이옥션 이현석부장
010-9963-6345

NAVER **단비플라워** 단비플라워 우수기업으로

단비플라워

죽아화환3단 근조화환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의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전천후 시공성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특허(제10-1097784호) 특허(제10-0562035호) 특허(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뿐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특허방수 특허(제10-1239196호) 특허(제10-0562035호)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낡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시공후 시공전

외벽 패턴

홈에디터에 방문하시면아파트사이트 카탈로그 다양하고 아름다운 패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광주전남 대리점 **511-0444** 010-6603-0405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